

에콰도르에서의 4년의 삶을 진실되게 편지와 일기로 전하는 이 삶에 대한 기록이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문화를 접하면서도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애쓰시는 마음을 보게 되었다.

나는 40 중반이 되면서 나의 순수한 시절의 정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들이 뭔가 섞이고 더해져서 흠탕물처럼 맑지 않아서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내가 시커멓게 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마음이 최근에 자주 들어서 천국에 빨리 가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나의 양심은 게을러지고 합리화 하는데 어느 덧 익숙해져 간다.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기에 교사의 삶에 소홀해 져도 되고 이리저리 어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지 나를 되돌아보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이 나의 현주소이다. 텀 선생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 늘 기도하기를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정직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왜 더 멀어지는 걸까?

이 책은 자신의 감정과 들었던 생각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래서 더욱 선교지를 여실히 드러내어 주고 나도 함께 그 삶 속에 간접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똑같이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감정도 드러내지만 곧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닳고 싶다. 글로 기록하고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비자를 얻기 위해 100만원의 뇌물을 주면 해결될 것이었지만 선교사는 정직해야 하기에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나에게 크게 와 닿았다. 선교를 하기 위해 나는 100만원을 주었을 것 같았다. 나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순결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일까? 사역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선택이 되었을 것 같다.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뉘우치는 것을 반복했을 것 같다.

교회를 심방하고 여러 곳을 둘러보는 귀중한 배낭을 잃어버리고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없는 것조차 감사하는 모습,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오히려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 교만과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면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절제하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감사와 겸손의 사람이 되길 한 발자국이라도 떼어보길 소망해 본다.

또 한 가지는 에콰도르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이다. 남편에게 맞고 가난하지만 가족들이 매일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 또, 공동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가난한 가정이지만 교회에 갈 때 단정하게 차려 입고 늘 밝은 모습으로 폭행하는 남편을 섬기는 여성도님도 있다.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잘 대접하지 않는 아침식사를 대접하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여성도를 통해 에콰도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다. 복음이 참 행복을 가져옴을 본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더욱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나

고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내일이 다시 시작될텐데 오늘보다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시선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할 수만 있다면 주변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더욱 드러나기를 기대해 본다.